

# 점포 1층으로...고객중심 밀착경영



### 순천연향동지점 1층 이전...진월동·문화전당점도 이전 예정 2022년까지 시장 점유율 광주 35%·전남 20% 달성 목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올해도 점포 1층 이전을 추진하며 고객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을 밝혔다.

광주은행은 최근 건물 2층에 있던 순천연향동지점을 같은 건물 1층으로 옮겼다.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아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전식은 생략했다고 광주은행은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광주은행은 광주·전남지역 영업력을 넓히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 신설과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 왔다.

송 행장은 올해 초 오는 2022년까지 여수신 시장점유율을 광주는 4%포인트 높인 35%, 전남은 6%포인트 올린 2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지역에는 6개 점포가 새로 생겼고 연향동지점을 포함해 7개 지점이 1층으로 이전했다. 올해는 광주시 남구 진월동과 문화전당지점 2곳이 추가로 이전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점포가 인차로 등을 절감하기 위해 1층보다 높은 층으로 이전하는 추세지만, 광주은행 영업점 5곳 중 3곳(60.6%·89개)은 1층에 분포하고 있다.

6월 현재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117개, 수도권 28개 등 14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점포 5곳 중 1곳(19.3%)이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셈으로, 5인 이하의 소규모 점포 위주로 수도권 시장을 공략한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친 성과로

분석된다. 광주은행 영업점은 134개(2015년)→140개(2016년)→141개(2017년)→142개(2018년)→145개(2019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365열린코너'도 지난 2018년부터 지

늘어 247개(광주 181개·전남 66개)를 갖추고 있다. 제휴 자동화 기기(ATM·CD)는 수도권 지역 1개 등 3개를 추가하면서 144개를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공공자금이 지역 살림 곳곳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

자체 1급고 역할을 수행하는 5개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신선했다.

송 행장은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은 물론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광주지역의 2층 이상 영업점을 선별해 1층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고객중심과 지역밀착경영으로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남·광주의 대표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기관·단체 1청결구역' 환경봉사

4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 임직원 40여 명은 광주시 동구와 맺은 '1기관·단체 1청결구역' 협약에 따라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환경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매출 300억원 달성

지역농협의 매출 효자로 꼽히는 하나로마트 가운데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연 매출 300억원이 넘는 곳이 나왔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광주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300억원을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광주농협은 로컬푸드 매장 갖춘 매곡점·문화점·두암점·동광주점 등 7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농협 농산물 매출은 전년에 비해 41억원 증가했다.

소비자 쉽터인 힐링플라워 스마트팜을 갖춘 동광주점의 경우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다녀간다고 광주농협 측은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하나로마트 390곳이 운영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 재난지원금 제외된 대형마트, '반값 행사'로 반격

### 롯데마트, 80억원 규모 '통큰절' 행사...이마트, 1+1 할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들이 이번 주말 대대적 할인전을 펼치며 매출 만회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오는 6-7일 80억 규모의 물량을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하는 '통큰절'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1등급 이상의 한우 등심이 기존 판매가보다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선보인다.

롯데 엘포인트 회원이 롯데나 신한, KB국민, NH농협 카드로 결제하면 상당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행복 생생란' (30일 2980원)과 'GAP(농산물우수관리) 대추방울토마토' (1kg 980원)도 할인 대상이다.

행사 기간 동안 총 200만장의 국내산 마스크를 장당 580원에 판매한다. 다만 1인당 구매 한도는 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마트도 이번 주말 바나나, 기저귀, 액체세제 등 핵심 상품군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바나나와 군만두, 즉석카레·짜장, 자일리톨 껌, 액체세제, 주방세제, 헤어 염색약, 칫솔 등이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된다.

기저귀와 섬유탈취제, 브랜드 키친타월, 휘이슬 클렌저, 냉장냉면도 2개 구매 시 50% 할인된다.

이 밖에 두라셀 건전지와 스미글 가방·필통, 이글루 아이스박스, 부탄가스 등

이 30~5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6일 하루 동안에는 케익류 과자와 날개 껌이면, 찜장 등이 1+1로 판매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입점한 임대매장(푸드코트 제외)을 이용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동광주점을 제외한 광주·전남 이마트 6곳은 임대매장을 이용한 뒤 8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5000원 할인을 준다. 할인은 이달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도 오는 8월31일까지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롯데마트에서 3만원 이상 사면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올해 9월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앱으로 환전하고 택배로 외화 받는다

### 환전·송금 업무 위탁 전면 허용 현금인출기에서 해외송금 가능

코로나19 영향으로 환전 등 외화서비스가 점차 비대면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의 외화 서비스도 모바일기기를 통한 이용이 수월해졌다.

4일 정부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화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환전과 송금 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만약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다. 한도는 회당 2000달러이다.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ATM에 외화를 입금하면 ATM업체가 이를 소액송금업자에 보내고, 소액송금업자가 해외로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1회 5000달러, 1인 1년 5만달러까지 허용되고 있어 위탁을 통한 송금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운 송금·환전서비스에 뛰어들고자 하는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외화 거래의 비대면화가 확산하면서 외화 관련 금융상품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은행이 지난 달 새로 출시한 '2020 달라진 특판 외화정기예금'은 1차 판매 기간(5월11-31일) 20여 일 동안 95좌가 몰렸다. 판매 금액은 163만 달러(원화 약 20억원) 정도다.

이 적금은 미국 달러 기준 월 1000달러부터 최대 30만 달러까지, 6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0.85%이지만 최고 연 1.50%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외화적금 상품인 '해피라이프 여행스캐치 외화적금'은 매달 평균 500좌가 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판매를 시작한 뒤 가입세자는 5월 말 현재 4251좌를 기록했다. 누적된 가입 잔액은 미 달러 108만6029달러(원화 13억2400만원)에 달한다.

판매 첫 달 1209좌를 모았던 이 외화적금은 지난해 12월 746좌, 올 1월 183좌 등이 가입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월에는 894좌가 몰리면서 전월보다 5배 가까이(388.5%) 증가했다. 3월 외화적금 가입 계좌도 495좌를 기록했다. 4월 378좌, 5월 346좌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방법은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은 물론 스마트뱅킹, 모바일앱뱅킹으로 확대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PS, 기술·인력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

한전KPS는 회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 및 인력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2년 여 준비 끝에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력설비 정비전문 공기기업인 한전KPS는 고객들의 발전(화력·원자력·수력)과 송전설비의 성능·신뢰도를 높이고 민간 정비회사로서의 기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구축된 관리 체계는 종합적인 정비기술과 인력자산 분류, 기술명세서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종합관리체계에는 기술자산 분류 프레임워크를 통해 120여개의 정비사업기술의 기술 수목도와 기술코드를 부여했다.

385개의 정비 요소기술과 1043개의 정비 세부기술 연관도도 넣었다.

기계, 전기, 계측, 특수 분야별 정비사업 기술명세서와 기술경쟁력 확보전략이

담긴 기술자산 관리체제도 담고 있다. 또한 인력자산 분야에서는 기술 및 지원 분야별 전문가 등급(고급·중급·초급)을 분류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 종합관리체계는 지난 36년간 축적된 한전KPS의 기술과 인력자산을 체계화·표준화한 것"이라며 "전력설비 정비시장에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서의 위상제고와 글로벌 사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한전KPS는 자사 기술력을 집성한 '정비 엔지니어링 핸드북' 원전(原典) 번역서를 완간해 발간하기도 했다. 6부, 676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발전정비 종사자들의 입문서 및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